

겨울 대비 '노후주택 개보수' 완료

(저소득층)

전주시, 총 305가구 수리... 내년에는 주택용 소화시설 설치 등 지원 확충·다양화

전주시가 지방일부가 무너져 비가 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온 저소득층 300여 가구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후주택을 수리해줬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총 6억4400만원을 투입한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시민들과 사업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의 지붕 개량과 벽체 보수 및 보강, 부엌 개조(입식), 수세식 화장실 및 보일러 설치, 창호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주거약자인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등 33가구에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화장실 보수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편의·안전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총 305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개·보수 완료 후에도 지원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A/S를 실시해 불편사항 처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혜가구의 만족도를 높였다.

동시에, 기술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능봉사자 양성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1일 센터 이웃사랑관에서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안전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사업을 마쳤다.

시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주택실사를 실시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대상자를 발굴, 수혜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어르신(74세, 평화동)은 "주택의 노후화가 심해 지방일부가 무너지고 비가 새는 등 불안하고,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이 많았는데 긴급개구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지붕개량과 외기차단막 보수 지원을 받았다"라며 "이제는 안전한 집에서 따

뜻하고 안락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임재준 주거복지과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신청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보다 다양화하고 사업내용을 확충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집수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오는 25일 총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차도 위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6번째 '차 없는 거리'가 오는 25일 에너지 전환 박람회'를 주제로 전주객사 앞 총경로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다가교사거리에서 객사 앞 총경로사거리까지 총경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사람과 생태, 문화·예술로 채우는 제6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운영한다.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전주 도시형 에너지 전환 박람회인 '나는 뽕뽕이다'도 진행돼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행사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 박람회에서는 시민들이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내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공방 △에너지 효율 높이는 상담소 △뽕뽕이로 만드는 집 △에너지과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다룬 연극 '뽕뽕의 눈물' 등 남녀노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효자동·삼천동 상수관 올해 교체

상산고·효자초·삼천1동 주민센터 인접지역 등... 2단계 1차분 15% 공정률

오래되고 약한 수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 주택가의 상수관이 올 연말까지 교체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8월 착공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1차분 공사가 현재 15%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100~150억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총 1,200억원을 투입해 급수구역 89개 소블록의 노후관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2단계 사업지역 중 내년 말까지 효자1·2동과 중화산동, 삼천1동, 완산동, 평화동 일부지역 등 7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총 122억원을 투입해 1차 구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상산고등학교·효

자초등학교·삼천1동 주민센터 인접지역 등 효자2동과 삼천1동 구간의 노후화된 상수관 11km를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1차 사업을 통해 총 길이 36.2km의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개량해 현재 74%에 불과한 해당지역의 유수율을 92%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수돗물이 각 가정에 도착하는 유수율이 1% 증가하면 연간 약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차분 공사가 완료되면 7개 동에 걸친 사업구역 내 3,700여 가구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시는 이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사업구역 내 모든 수용가들에게 임시급수관을 연결, 단수 없는 공사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1차분 공사에 이어 오는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1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후동 부근 6개 블록을 대상으로 한 2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주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 후 1차분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 공사를 통해, 전주시 급수구역 전체를 128개 블록으로 나눠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50개 블록 노후관 655km를 교체했다. 또, 운후 중진 배수지를 개량해 직·간접 급수방식에서 간접 배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블록별로 유량·수압 실시간 모니터링과 계측, 감시, 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현대화된 상수도 관망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민근 기자

'경찰의 꽃' 총경, 누가 될까

권현주·고준호 등 6명 경쟁... 빠르면 다음달 발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에서는 누가 승진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총경 인사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6명 가량이 승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후보들도 경쟁해 선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경찰 근무평정이 모두 완료됐고, 빠르면 다음달 총경 승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총경 인사의 경우 대체로 치안정감과 치안감, 경무관 계급 인사가 끝난 1월에 발표됐지만 올해의 경우 내년 2월에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다음달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6명의 총경 후보(경정)가 거론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2007~2009년에 경정 배명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전북지역의 경우 총경 티켓은 '1.5장'이지만 해마다 평균 2명이 총경의 영예를 안았고, 3명의 총경이 종종 나오기도 했다.

먼저 전북경찰청 대상은(가나다순) 권현주 강력계장(경찰대)과 임종명 경비경호계장(일반), 한달수 홍보계장(경찰대) 등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준호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찰대)과 김민택 익산경찰서 청문감사관(경찰대), 박종삼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간부후보) 등이 승진 후보군에 올라있다.

이처럼 총경 승진자가 6명에 육박할 가운데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전북 뿔뿔로 '3장'이 나오기를 간절히(?)바라고 있다. /뉴스

전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전주시가 시민들의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과 21일 이틀간 각각 옥천 배마루 작은도서관과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지난 17일 충북 옥천 배마루 작은도서관을 방문, 주교종 배마루 작은도서관장의 '주민이 만든 도서관, 배마루 도서관'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했다. 또, 전주시 어울림 작은도서관(관장 양현미)의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21일에는 그림책 특화도서관

인 전남 순천 그림책도서관에 방문, 인형극 공연과 전시공간 등을 관람하고, 그림책도서관 실무자의 특화도서관 운영 정책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또 양일간 해당 도서관 관자의 간담회를 통해 자원활동가들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상호업무협력 등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전주시 사립작은도서관이 공동체 및 특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배우는 등 마을 공동체 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민근 기자

최원석 군산경찰서장, 군산대 특강

군산경찰서 최원석 서장이 21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군산대 최고경영관리과과정 27기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경찰의 변화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서장은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라는 군산 경

찰의 치안목표를 소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경찰의 개혁 방향 및 기본원칙, 인권 지향적 경찰 활동과 비전, 지치 경찰로의 전환 및 국민 만족, 수사권 조정 추진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마음·말·몸을 낮춰 군산지역의 안전과 행복을 높이는 헌신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성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어울림 전주농협 Good 농산물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